

31사단도 폭력 만연 5년간 1085명 징계

김광진 의원 국방부 자료 공개 가혹행위로 강등·영창 징계 간부도 39명이나 병영문화 개선 목소리 높아

우리 군(軍)이 폭력으로 멍들고 있다. 지역 향토 사단인 31사단에서만 지난 5년간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병이 무려 1000명에 달하는 등 부리 깊은 폭력적 군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만연한 폭력적 문화로 전우애(戰友愛), 군의 기강(紀綱)이 사라져 총체적 군기 문란 상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7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육군 제31 보병사단의 최근 5년간(2009~2014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31사단의 경우 지난 5년간 부대 내·외에서 발생한 폭행·가혹행위로 인해 강등·영창·근신 등 징계를 받은 사병이 10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징계받은 간부는 39명으로 조사됐다.

병영 내·외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병·간부는 2009년 137명(간부 2명)을 비롯 ▲2010년 105명(간부 2명) ▲2011년 247명(간부 6명) ▲2012년 223명(간부 12명) ▲2013년 280명(간부 7명) ▲2014년 7월 말 93명(간부 4명)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영 외 사건·사고는 사병의 휴가나 외박 등 부대 밖에서 발생한 것이다.

군 지휘부가 장병들의 폭력·가혹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징계 처분된 사병 280명 중 137명이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영창을, 119명은 휴가 제한 조치를 받았고, 19명은 근신 조치됐다. 사병 1명은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수치만 보면 군 장병의 폭력·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우려가 나올만한 실정이다. 또 31사단이 지속적인 폭력·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근절 대책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군 장병의 군기 문란 행위가 향토 사단인 31사단에서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자식들의 군 입영을 걱정하는 부모가 없도록 폭력적 군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t 화물차가 3t 차량 둔갑 ‘도로위의 세월호’

속도 제한장치 개조 이어 적재공간 불법증축 무더기 적발 제동거리 길어지고 전도사고 위험...화물차 안전 관리 시급

빠른 수송을 위해 속도 제한 장치를 개조하거나 화물을 정량보다 더 싣기 위해 불법 개조하는 화물차들이 늘면서 화물차 안전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물차는 특성상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불법 재생타이어 사용이나 안전점검 준수 여부 등 구조 변경과 관계없더라도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사항들은 강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량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 개조·운영한 차주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적재 공간을 불법으로 늘린 차주와 제작업체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27일 영업용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주고 돈을 받은 활어차 제작업체 대표 김모(52)씨와 불법개조한 차량을 ‘적절하게 개조했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한 최모(58)씨 등 2명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차량 개조를 맡긴 화물차주 이모(40)씨 등 15명과 자동차 검사 대행 업체 대표 정모(44)씨 등 5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류 위조 전문 브로커 및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대표와 짜고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주들이 의뢰한 1t 화물차 15대를 무단으로 증축, 적재 용량을 최대 3t까지 끌어올리고 자동차 등록증까지 위조한 뒤 1대당 350만~800만원 등 모두 928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부로부터 활어 차량 제작 권한을 위임받은 김씨는 화물차주 이씨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적재함의 높이를 높여주거나 수산물을 싣는 수조를 2칸에서 3~4칸까지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적재함을 높여거나 적재량을 초과하면 브레이크 작동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방향 전환시 넘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류 위조 전문가 최씨 등은 정상적으로 구조 변경이 이뤄진 것처럼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대표 등과 짜고 구조 변경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이후 이 증명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사고로 매년 1200명 이상, 하루 평균 3.5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 가운데 38%는 과적과 적재 불량에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일명 ‘도로 위의 세월호’라 불리는 화물차 등 대형차 불법 개조 및 운행 여부와 함께 관계 당국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나눔... 대안적봉사자 광주·전남지사는 27일 광주 희망나눔센터 강당에서 20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나눔’ 행사를 가졌다. 봉사원들이 송편을 빚어 정반에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로 연기 고싸움축제 남구 내달 13~14일 개최

세월호 참사로 연기된 제32회 고싸움 놀이축제가 오는 9월 13~14일 광주 남구 고싸움 놀이 전수관 일대에서 열린다.

첫날인 13일에는 민속놀이 체험 행사와 함께 고싸움 놀이, 줄타기 시연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중국 중요무형문화재인 쓰촨성 성도시의 ‘황룡계천 화룡무’도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와 풍선 마임과 에코도르 출신 음악가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다.

14일에는 사물놀이, 남사당패 보존회의 줄타기 시연, 줄타리기 행사가 열린다.

고싸움 놀이는 남성의 역동성, 힘, 투지가 넘치는 호남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1970년 7월 22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됐다. 매년 정월대보름 고싸움 놀이 전수관 일대에서 축제가 열렸다. 문의는 062) 607-274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수색 민간어선 선원 손가락 절단 부상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동원된 민간어선의 선원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26일 오후 7시 50분께 진도군 병풍도 만동 해상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해 저인망 어선에서 그물을 던지던 정모(40)씨의 손가락이 절단됐다. 정씨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고, 네 번째 손가락이 찢겨 목포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오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7차례에 걸쳐 잠수사 34명을 투입, 수중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26일 새벽 작업부터는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에 1개 팀을 추가로 투입해 2개팀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중앙부분을 담당하던 해군팀은 선수 부분으로 수색구역을 바꿔 진행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 박철완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

제주지검은 27일 공연업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박철완 전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있던 박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그에게 사건을 배당해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지검장과 근무했던 후배 검사들이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경우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사기관, 검찰사무원, 수사사무원 또는 마약수사사무원 등이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법무부가 신속한 사표 수리로 비판을 받는 만큼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하게 되면 약식기소할 것인지 또는 정식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작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유병연 변사체 확인 지연 순천지청 부장검사 등 감봉

대검찰청 검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7일 검찰위원회 회의에서 유병연(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확인 지연과 관련, 순천지청 김모(45) 부장검사와 정모(37) 검사에 대해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유씨로 밝혀진 사신의 신원 확인 지연과 관련해 관할 청인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씨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2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사인 분석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

검찰위원회는 이동열(48) 순천지청장과 안영규(51)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이 지청장에 대해 최근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했었다. 연합뉴스

식당 뒷문 열고 침입해 술 훔쳐 마신 ‘간 큰 중학생들’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해 술을 훔쳐 마신 중학생 4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2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산구 A중학교 학생 김모(14) 군 등 4명은 지난달 31일 새벽 3시에 광산구 신가동 식당 주방 뒷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를 가져가는 등 수 차례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주류를 훔친 혐의.

○...김군 등은 식당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상 작의를 확인한 경찰에 붙잡힌 뒤 “(식당) 잠금 장치가 허술하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친구들과 함께 술병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m²**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중음
매매가 5960만원
- **임야 36026m²**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6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m²(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급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중음
★ 사무실 적합, 전체 울수리
시세/분양가-4억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중음
전체 울수리, 주가경/사무실 겸용
★ 시세/분양가-2억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매매-6500만원
-일시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매매

문의.010-3605-5000

아파트형 콘도/ 별장/ 펜션 분양
문의, 010-3605-50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8천만원(융자 4600만원 포함)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일시불 지불시 파격세일!

경매 투자

- ▶ 특수비밀 배우실 분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